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16일

## 어류 자원 재난이 허리케인 SANDY의 결과라는 연방 선언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성명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미국 상무부가 뉴욕주의 어류 자원 재난이 허리케인 Sandy에 의해 야기된 해안 황폐화의 결과라는 선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미국 중소기업청이 영향을 입은 어업 기업에 재난 용자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가 Nassau, Suffolk, Westchester, Rockland, Putnam, Orange 카운티 및 뉴욕시의 해안 커뮤니티를 위한 재난 기금을 전용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허리케인 Sandy는 뉴욕주의 타격이 심한 해안선을 따라 어업에 광범위한 파괴를 야기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연방 선언으로 우리는 많은 해안 커뮤니티들의 경제적 생명력인 이 중요한 산업을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어업에 미친 충격의 강도는 아직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예비 정보는 선박, 도크, 위판, 가공 공장 및 지원업의 광범위한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어패류 분야의 폐쇄를 나타냅니다.

연방 Magnuson-Stevens 어류보존관리법은 미국 상무부가 상업 어업 실패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재난 선언에 의거 어업에 경제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패란 어업 종사자들이 어류 자원 재난으로 인해 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허리케인 Sandy는 어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괴멸적 영향을 끼쳤습니다”라고 DEC 커미셔너 Martens는 말했습니다. “장기적 영향은 심대하여 어업이 지원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난 선언은 중요한 도크, 계류장 및 기타 어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재건하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상업적 및 용선 낚시 선단,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조개 어업 커뮤니티 및 어업 인프라를 포함한 어업은 기존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을 피해에 대해 연방 용자 및 보상을 받을 자격이 이제 있습니다. 보트 선착장, 도크 및 낚시 부두 같은 도시 설비의 피해도 자격이 있습니다.

즉시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청 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는 <http://www.sba.gov/community/blogs/official-sba-news-and-views/open-business/hurricane-sandy-update-2-sba-standing-read>에 있습니다.

상무부는 또한 이 선언을 이용하여 의회에 어업 커뮤니티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재난 기금을 전용하도록 청원할 것입니다.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파괴가 여러 주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상무부는 25% 주 비용 분담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